

“매각 철회 · 증설 하이트진로 감사”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공장 임원 초청 간담회... 오제홍 본부장에 감사패 수여

김승수 전주시장이 공장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증설투자 계획을 확정된 (주)하이트진로 전주공장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 매각 결정을 철회하고 신규 설비 증설 등 총 160억 규모의 증설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40여 명의 추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는 20일 시장실에서 (주)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의 오제홍 전북권역 본부장과 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주)하이트진로가 전주공장 매각을 철회하고 신규 설비 증설 등 추가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방안을 확정 발표하든 큰 공을 세운 오제홍 본부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제홍 본부장은 이날 하이트진로에 대한 김승수 시장의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향토기업과 지자체의 유대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기업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성장해야 새로운 고용창출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향토기업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불우이웃과 지역아동,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두부두부 온정을 베풀어주시고 전주공장 매



전주시는 20일 시장실에서 (주)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의 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은 (주)하이트진로가 전주공장 매각을 철회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방안을 확정 발표하든 큰 공을 세운 오제홍 본부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각 철회와 추가 증설투자로 상생의 꽃을 피워낸 (주)하이트진로는 전주 시민들에게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온 30년 지기 친구”라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향토기업 모두가 동반성

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공간 멘토 강사단’ 기전여고서 직업 공무원 소개

전주시청 직원들이 직업 공무원을 꿈꾸는 전주시 청소년들의 길잡이 강사가 된다.

전주시는 20일 전주기전여고에 2018년도 첫 번째 ‘전주시 공간(공무원이 간다!) 멘토 강사단’을 파견했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멘토단 중 가장 먼저 파견된 김현욱 전주시 장애인복지팀장은 이날 기전여고 학생들과 만나 공무원 임용시험 정보와 지자체 공무원이 하는 일 등을 안내했다.

특히 김현욱 팀장은 공무원 임용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와 주의사항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현실적인 이해를 도왔다.

또한 직업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공무원은 ‘가장받는 직업’이 아닌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인 ‘공복(公僕)’”이라며 공무원이 가져야 할 소명 의식을 알리는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 30일까지 접수... 4개 분야 33개 기업 선정 지원

전주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2018년도 ‘향토중소기업 성장사다리사업(이하 성장사다리)’ 참여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으로 기술혁신 R&D 시제품 제작 지원, 생산기반 공정 개선,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 표준화 인증 지원 등 4개 분야의 33개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

먼저 R&D 시제품 제작지원의 경우 4개 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경쟁력을 키운다. 또 4

개 업체에는 작업 공정 개선과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생산기반 공정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상품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5개 업체에 대한 표준화 인증 지원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한해 선정된 성장사다리 기업들이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異(이)업종 융합산업 포럼’도 연간 4회 정도 실시한다. 오는 10월에는 지난 2015년부터 선정된 성장사다리기업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바자회를 열어 교류확산 및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전주형 성장사다리 사업은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지난 해에

는 R&D 시제품 제작(6개사), 공정 개선(4개사), 마케팅 지원(18개사), 비즈니스 지원(6개사), 표준화(2개사) 등 총 36개사를 지원했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맞춤형 토달 지원인 성장사다리 사업을 통해 관내 영세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시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www.kctech.re.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신상품개발지원센터(063-219-3591)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동료 살해 환경미화원 완벽 범죄 꿈꿔

동료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1년 동안 치밀하게 사건을 은폐해 완벽 범죄를 꿈꾼 5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20일 전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이모(50)씨를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동료인 A(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인 5일 오후 6시께 시신을 쓰레기봉투와 이불로 감싼 뒤 자신이 쓰레기 수거하는 노선에 버렸다. 이어 6일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소각장에 유기했고, A씨 시신을 소각시켰다.

이후 이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A씨 휴직계를 팩스로 제출하고 A씨 목소리를 흉내내 구청에 전화해 휴직을 요청했다. 또 A씨의 딸들에게 3차례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보내고, 대학교 등록금을 입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이 A씨가 오랫동안 얼굴을 비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가족이 A씨의 집을 찾아가 달미가 잡혔다.

집에는 각종 카드 고지서가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이씨가 릉살통에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용이 발견됐다.

가족들은 A씨가 평소 유혹을 즐기지 않았다는 점에 의심을 느껴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신용카드가 사용된 유혹주점 CCTV를 확인했고 이씨에게 소환을 요구했다.

경찰의 최초 소환 요구에 응했던 이씨는 객관적 자료 요구에 압박을 느껴 지난 7일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를 추적해 지난 17일 인천시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화김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채무 관계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민 기자

‘지혜의 원탁’ 전주시민 건의사항 신속 처리

현재까지 185건 접수... 담당부서 지정 등 관리 강화

전주시가 ‘2018 전주시 지혜의 원탁’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전주발전 사업들과 건의사항을 끝까지 관리한다.

시는 지혜의 원탁에서 수렴된 전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혜의 원탁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전주시 33개 동을 찾다니며 전주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이다.

각각의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 담당부서를 배정,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혜의 원탁 건의자에게는 해

당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이 직접 추진가능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 불가 사유 등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등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월 17일부터 지혜의 원탁 및 현장 방문을 이어 오고 있으며 지난 16일 기준으로 15개 동에서 △복지환경 41건 △건설 53건 △교통 27건 △생태도시 24건 △문화관광 12건 △상수도 4건 △교육 6건 △보건 3건 △도시재생 1건 △경제 5건 △기타 3건 등 총 185건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접수된 185건의 건의사항 중 36건을 처리했으며 144건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월드컵골프장, 고객감사 홀인원 이벤트

전주시설공단 월드컵골프장은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홀인원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벤트 내용은 홀인원 확인증서와 기념품(골프공)을 증정하며 희망하

는 경우 골프장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홀인원 사실을 게재한다.

한편 전주월드컵골프장 홀인원 이벤트는 2015년 3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6년에 11명, 2017년에 15명이 홀인원을 기록했다. /채규남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